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9 November 2015 (afternoon)
Lundi 9 novembre 2015 (après-midi)
Lunes 9 de noviembre de 2015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벼룩시장에 나온 상품들은 백화점의 상품과는 달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품이거나 보관품들이 많아 세월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다.

나는 찻대를 보면 문득 사고 싶다.

- 5 목재, 금속재의 찻대는 장식과 조각도 다양하지만, 나로 하여금 찻불 속으로 인도한다.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해 밝혀졌을까. 찻대가 놓여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 몰라도, 찻불이 커짐으로써 밤과 사색의 한 중심점이 되었을 것이다. 찻불이 타는 밤에, 찻불을 켜 이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랑했지만 이별하여 가슴에 남아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찻대를 보면 마음 속 깊이 감추어 둔 눈물샘에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을 수 있음을 느낀다. 찻불처럼
10 뜨거운 눈물이다.

순백의 초로 영혼의 뼈와 살을 다 태워 사랑의 제전에 한 줄기 빛을 바치고 싶은 때가 있다. 마음의 한 복판에 사색의 심지를 돋우고 다시금 찻불을 켜고 싶다. 은밀히 영혼의 이마를 맞대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붓을 보면 사고 싶어진다.

- 15 회고 부드러운 큰 붓으로 듬뿍 먹물을 묻혀,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하고 싶다. 나는 서예에 조예가 없어 붓을 들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일생의 명상과 정신을 뭉뚱그려 한 구절 멋들어지게 써 보고 싶다. 단 몇 자로 주저없이 일생의 체험과 감정을 축약해 놓고 싶다. 부드러운 붓으로 심오하게, 깨달음의 아름다움을 남겨 놓길 바란다. 붓을 보며 인생과 서예의 경지가
20 없어 안타까워 하지만, 벽에 걸어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글을 써고픈 마음을 일으킨다.

다기茶器를 보면 슬그머니 사고 싶어진다.

- 집에 벗님이나 손님이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찻잔으로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 하동 화계에서 나는 ‘우전차雨前茶’를 드는 것만으로도 지리산 만년 명상과 만날 수
25 있지 않는가. 청산靑山의 명상에 입맞추며 차를 마시는 일은 영원과 마주 앉는 일이다.

- 다기는 화려하거나 섬세한 장식미를 지닌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오묘하고, 담담하면서도 깊은 맛이 풍기는 것을 갖고 싶다. 좋은 찻잔은 가마에서 구워 낸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 향기로운 이가 오랜 세월 차를 마시며 만지는 동안, 갈수록 고결한 인품과 마음이 묻어서 점점 심오해지고 신비로워진 것이다. 찻잔은
30 주인에 의해서 깊이와 멋을 갖게 되므로, 명인이 연주하면 어느새 좋은 악기가 되는 이치와 다름없다. 찻잔을 보면 마음의 경지와 세상 사는 법을 생각하게 한다.

목관악기를 보면 불현 듯 갖고 싶어진다.

- 피리, 대금 등을 불 줄 모르건만 마음만으로 한없이 불어보고 싶다. 달밤에 호젓이 강가로 나가, 영원의 하늘을 향해 불어보고 싶다. 비록 소리를 내진 못해도
35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상을 풀어, 멀리멀리 누구에게라도 다가가 교감하고 싶다.

목관악기를 잘 불려면, 얼마나 마음이 깊고 넓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순간에 퍼져 나간 가락이 영원에 닿기 위해서는 득음得音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들숨 날숨이 하늘과 땅에 닿아야, 가락이 깨달음과 영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처지와 경지도 모르면서 물욕을 드러내는 꼴이 주책스럽고 우습기만 하다.

정목일 <내가 갖고 싶은 것들> (2008)

- (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와 그것이 읽는 이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나) 이 작품에 사용된 열거법의 사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설명하시오.

2.

어머니의 그릇

-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5 그릇, 그릇 중얼거려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10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15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20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가족> (2004)

(가)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나) 이 시에서 그릇과 시적 화자가 쓰고 싶은 시와의 연관성은 무엇이고, 이 연관성은 어떠한 표현 방법을 통해 전개되는가?
